완도 치유페이 한달만에 1000명 돌파

여행 경비 20만원 지원 관광 정책
1000번째 이용객 특산품 전복 선물
완도 방문의 해, 연중 다양한 행사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이 지난 1일 완도치유페스타 현장안내소에서 1000번째 이용객에게 완도 치유페이와 특산품(전복 2kg)을 전달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완도 치유페이'가 시행 한 달 만에 1000번째 이용객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완도군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시행하고 있는 '완도 치유 페이'의 1000번째 이용객을 대상으로 특산품 제공 이벤트를 펼쳤다고 밝혔다.

'완도 치유 페이'는 여행 경비 중 최대 20만원을 지원해주는 관광 정책으로, 지난 3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한 달 만에 1000명을 돌파했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총 1000팀, 2950명이 1억1000만여원의 완도 치유 페이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은 지난 1일 완도치유페스타 현장안내소를 찾아 1000번째 이용객에게 완도 치유 페이와 특산품(전복 2kg)을 전달했다.

서울에서 완도를 찾은 치유 페이 1000번째 이용객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완도를 방문했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게 돼 기쁘다"며 "즐겁게 힐링하고 선물도 받는 완도 여행을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앞으로도 '완도 치유 페이 N번째 이용객 이벤트'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2025 완도 방문의 해' '를 맞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시작으로 5월 장보고 수산물 축제,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 치유 페이가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치유 페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도 치유 페스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 선도 수선화단지.

신안의 섬, 수선화로 채우다…지도읍 선도서 4~13일 축제

신안군은 지도읍 선도에서 '신안의 봄, 수선화로 채우다'란 주제로 4일부터 13일까지 '섬 수선화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축제가 열리는 선도는 14.5㏊에 17품종 234만구의 수선화가 식재돼 있는 전국 최대 군락지이다.

축제는 수선화 감상과 함께 꽃팔찌 만들기, 스텐실 꾸미기체험, 수선화 그림그리기, 스템프 투어 등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또 이벤트로 신안군의 'colorfull+신안'에 맞게 수선화의 노란색 의상을 착용한 관람객에게는 50% 입장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섬 수선화 축제 관계자는 "수선화 축제를 즐기는 많은 사람이 따뜻한 봄의 기운을 함께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군, 운전직 공무원 대상 안전교육

안전의식 높이고 위험 예방 중점

진도군이 공무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운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전남교통연수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교육은 교통사고 예방, 안전 운전 기법, 응급처치,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교육 등 종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별 대응 방안을 배우고, 최신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진도군은 이번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운전직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안전 의식을 높여 군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광군, 영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5월 완료

1만3176필지 경계 바로잡아

영광군은 영광읍 영광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오는 5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24억원을 투입해 총 1만3176필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영광지구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도시 시가지로, 필지 간 무단 점유와 건축물 경계 저촉 등 무분별한 건축 행위에 지적 불부합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 분쟁 해소, 현실경계 반영, 공공용 토지 정리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로가 실제 개설됐음에도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아 발생하던 각종 인허가 제약과 공공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 문제 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조사사업 이후에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도면 등 관련 공부를 정비할 예정이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징수액은 약 220억원, 지급액은 약 370억원으로 예상되며 군은 차액 150억원을 군비로 확보해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지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다"라며 "조정금 납부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진행 모습.

무안군, 초·중·고생 '생명 살리는 양성 교육'

무안군이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은 주변 사람의 경고 신호(자살을 암시하는 언어·행동·상황적 신호)를 확인하고,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살 예방 교육이다.

오는 10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양성프로그램 '보고듣고 말하기2.0'을 활용해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신호 인식, 자살 생각을 묻고 죽음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경청, 자살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도와주기 위한 말하기, 우울증 스크리닝(CES-D, PHQ-9) 실시, 자살 예방 인식 개선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울증 스크리닝 검사 결과 고위험군 대상 발굴 시 정신건강자문의 심층 상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참여 등도 연계된다.

김성철 무안군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살 문제를 비롯한 지역 사회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지킴이 역할을 강화하고 자살률 감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해남군 청년 50명 월 10만원 주거비 지원

18~49세 최대 10개월

해남군이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2025년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가구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50명을 선발해 월 1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반기별로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생애 3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발되더라도 매년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이다.

해남군청 누리집에서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